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7일 목요일 음 6월 9일(1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30%
2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27/32℃
모레	구름 많음	26/31℃

구름 많음

제주는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7℃, 낮 최고기온은 29~34℃로 예상된다. 낮부터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으니 외출시 유의해야겠다.

	해뜸 05:30 해짐 19:47		달뜸 12:46 달짐 00:12
물때	만조 04:00 16:56		간조 10:59 23:00

식중독지수 주의

자외선지수 매우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월드뉴스

러 가스 중단에 노르웨이 파업까지

유럽 에너지위기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에너지 숨통'을 쥐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에너지 부족에 직면한 유럽의 위기가 커지는 형국이다.

러시아가 11일부터 가스관 운송을 중단한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유럽행 에너지의 주요 수출국인 노르웨이의 가스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하면서 유전·가스전 3곳이 멈춰섰다.

AFP,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독일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주 경로인 '노르트스트림'의 운영사는 오는 11~21일 정기 점검을 이유로 가스관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정비를 위한 일시 중단이지만, 서방의 제재에 반발하는 러시아가 독일 등을 길들이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웨이 북해 유전. 연합뉴스

러시아는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설비 수리 지연을 이유로 노르트스트림을 통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60%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 국영에너지기업 에퀴노르는 노동자들이 5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3곳의 유전·가스전 운영을 중단했다. 노르웨이의 파업 소식에 영국 가스 도매가는 이날 16% 뛰었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오 수 정
한산부종휴선생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을묘왜변과 제주의 관심

며칠 전 화북포구에 있는 별도연대 위에 올라섰다. 북쪽 바다를 중심으로 지금의 제주항 끝에서 조천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아마도 조선시대 별도연대를 지켰던 별장과 연군들은 이 자리에서 왜구의 침입을 확인하고는 바로 전투 태세와 함께 연기를 날려 위급함을 알렸을 것이다.

1555년 6월 27일, 왜구 1000여 명을 실은 왜선 40여 척이 화북포구로 침입했다. 이때 당시 조선의 관문이었던 화북수전소는 함락됐고, 2시간 거리 남짓에 있던 제주목까지 침략해 들어왔다. 당시 김수문 목사와 민관으로 구성된 군사들은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승전보를 울렸다. 이 왜구들은 이미 전라남도 영암·강진·진도 일대를 침입했다가 퇴각하면서 그 일부가 제주를 침범한 것이다. 이 사건이 제주의 유일한 승전사인 을묘왜변이다.

을묘왜변이 일어났던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전국을 평정하기 직전으로 매우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다. 이런 자국 내의 혼란을 틈타 일본인들은 해상으로 나가 왜구가 됐다. 또한 제주 사회는 수년째 지속적인 흉년과 기근으로 피폐해 있는 상태였고, 잦은 왜구의 침입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왜구의 침입과 자체적 자강 능력이 부족했던 제주로서 을묘왜변의 승전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왜구의 제주침입에 대해서 학자들 대부분은 제주의 해상지리적 위치에서 찾고 있다. 특히 제주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는 중간적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구의 침입에 시달려야 했고, 중국의 상선들과 많은 이양선의 출몰로 자체 방어체계를 마련해야만 했다.

제주가 지리적 요충지로서 주목을 받았던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의 동남아 진출을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아시아권에서 가장 좁은 면적에 가장 다양한 군사시설이 구축됐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제주는 과거에서부터 최근까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침탈과 억압의 역사를 품어왔고, 특별자치도라는 이름표에 제주 평화의 섬 역시 일제 강점기와 4·3 진상규명의 역할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정의를 담은 근거를 마련했다.

제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 중에 현재의 평화의 섬으로 오게 된 인과관계에는 과거 제주도민의 왜군이나 이양선의 침입에서 평화를 지켰다는 것도 분명 한몫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시대 왜구들과의 전투가 현대의 굵직한 역사에 가려 관심 밖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이런 과거사에 대한 콘텐츠 작업이 너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앞선다. 앞으로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장면, 문화유산의 하나로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현대를 거슬러 올라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하는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1인가구 고독사의 증가와 제주괸당

고 영 선
제주시 한경면 맞춤형복지팀장

복지에 대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은 행정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그 중 하나는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고독사에 대해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다.

전국적으로 1인 가구 중 나홀로 어르신, 지병으로 혼자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 등은 가족관계가 없거나 가족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쓸쓸히 노후, 지병과 싸우시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한경면에서는 이 같은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작은 제주 괸당의 정서이다. 자발적 지원으로 법으로 정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인 한경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들어 160가구의 관내 취약계층을 발굴 해냈다.

특히, '사랑의 안부나누기'를 통해 부쩍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이 이뤄지고 있다. 정기적인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정분을 돈독히 하는 제주의 괸당문화가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소외된 가구원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병원에 가는 내내 고마워 하는 모습이 아직도 아른거린다. 아쉽게도 다음 날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가는 일이 홀로 쓸쓸히 가시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면 새삼 지역 단위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성을 느낀다.

보상도 없이 묵묵히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펴주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한다.

소원 들어주는 빨간 행복 우체통

강 길 효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중앙 화단에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조형물이 있다. 바로 빨간 행복 우체통이다.

동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이 우체통을 이용해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 동네 빨간 행복 우체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소원 내용을 엽서에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협의체의 회의를 거쳐 매월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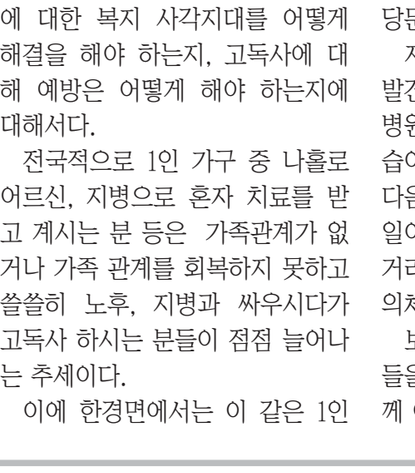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으로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이거나 자신의 상황을 이웃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대상자들이 엽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많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럼 소원을 들어주는 우리 동네 빨간 행복 우체통 사업에 도움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먼저 자신이 작성하고 싶은 소원 내용을 서식없이 작성한 다음, 행복 우체통에 넣어두면 된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는 주저하지 말고 신청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동홍동의 빨간 행복 우체통이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지역 주민들이 소원을 들어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상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확기 때도 이젠 중성화 비료!
토양개량 및 토양 pH조절
보보 입상 100% 수용성
(10-5-25+특수물질 8종)
마늘·양파·더덕·감자·비데기 일때 300~400평 1포 사용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특수 칼리(K) 25% 함유!!
빨리 용출되는 칼리부터 천천히 방출되는 칼리까지 여러종류의 칼리가 들어있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